칼 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한국 병원들이 우수한 이유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0년 글로벌 100대 병원에 한국 병원 7개가 포함됐다. 미국 18개, 독일 10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각 7개다. 이 숫자로만 보면 한국 의료는 글로벌 공동 3위인 셈이다.

필자 주위의 의사들은 한국 병원들이 해외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의식하고 병원을 운영했다면 더 많은 숫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평가 대상 21개국 약 7만 명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판조사(비중 55%), 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의 만족도 자료(비중 15%), 공개된 의료 부문 핵심성과지표(KIP)(비중 30%) 등을 전문조사기관이 종합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다시 6인의 저명한 의료인들이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100대 병원이 선정되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 글로벌 1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37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병원들이 이렇게 우수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서구와 일본에 비해 아직 시설과 의료기기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결국 인적 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직업윤리다.

더해서, 서구 국가들의 오래된 역사를 단기간에 따라잡은 국가적, 의료계 차원의 집중력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희생도 따랐다. 근대적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병원은 뉴욕의 벨레뷰병원인데 조선 영조 12년인 1736년에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갑신정변 후 고종 22년인 1885년에 제중원이 세워졌다. 단순계산으로도 150년이 뒤졌다.

한국의 의료인들은 국가 최우수 인재들이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진학한다. 이 현상은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학과 의료를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만들었다. 이들이 다시 혹독한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다. 물론 해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을 직접 겪어보았는데 내로라하는 하버드대 출신 수재들이 꼭 해병대 병사들처럼 과장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의사양성기간은 해외보다 더 길다.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미국식과 학위과정을 거치는 독일식이 합쳐진 하이브리드다. 실력이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편중 경향은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다수의 개인적 판단과 인생계획이 집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축적된 최고의 인적 자원, 의료지식과 정보를 산업화하는 데도 노력하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산업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병원들은 비영리기관이다. 나아가 영리목적으로 자회사를 거느리지도 못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막대한 자원과 경험, 진료자료, 생명과학 지식이 산업화되지 못하는 이유다. 메이오 클리닉의 경우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25개의 영리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중 3개가 기업공개를 했는데 공개 가치의 중간값은 5억6800만 달러다. 2개는 M&A로 인수한 회사다.

국내 최대 서울아산병원의 직원 수가 약 8700명인데 메이오는 약 6만3000명이다. 메이오의 2018년 총매출은 126억 달러로 삼성물산과 LG화학의 절반 정도다. 한국 병원들이 아직 넘보기 힘든 이유다.

병원의 재정이 좋아지면 일차적인 수혜자는 바로 환자들이다. 시설이 좋아지고 고가의 첨단장비가 도입된다. 근무환경이 좋아진 의료진은 더 효율적이 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해외로부터 유능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서울의대 동창생 명부를 보면 1960~70년대 졸업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에 훈련받고 진료할 대형병원이 없어서다.

1978년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생기고 문제가 없어졌다. 서울아산병원도 1989년 개원할 때 해외에서 활동하던 인재들을 대거 유치했다. 기여도에 따라 의료진 처우를 개선한다면 어렵게 양성한 우수인력이 병원을 떠나 개업하는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

社 說

논란 잠재운 대통령의 한마디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발굴해서라도 공급물량을 늘리라' 고 지시한 뒤에 주택 공급 방안의 히든카드로 떠올라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가세하며 뜨거운 쟁점이 됐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다시 잠금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항상 거센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이번에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은 다른 묘수가 딱히 없다는 데 있다. 집값 상승의 근원이자 대기자가 몰려 있는 강남권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그린벨트만큼이나 민감하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두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규제 완화의 특혜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이익환수 장치를 만든다 해도 막대한 부동자금과 어우러져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 광풍을 일으킬 게 뻔하다.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같은 지역에 거주 가구수를 늘리면 교통 정체가 심화하는 부작용도 크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비슷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나 상업지역 주거 비율 상향 등의 방안을 택하려면 강력한 이익 환수조치나 교통영향 평가 등 보완조치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지난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국·공립용지를 최대한 발굴키로 뜻을 모았다.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150만㎡ 규모의 매머드 군시설로 이 일대를 개발하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가능한 한 모든 공급 수단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의한 뒤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全 국민과 함께하는 2020평화사랑 공모전 많은 참여를

필자는 최근 인터넷 서핑 중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다.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지난 2019년도에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도기사였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통일이 필요하다는 설문응답이 55.5%,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9.1%였다고 한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체험하지 못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반증적 통계가 아닐까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전단 살포,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악화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 평화통일 등 안보확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때마침 경찰에서는 올해 6월22일부터 9월19일까지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평화사랑을 주제로 하는 "평화사랑 공모전"을 개최하여 평화에 대한 중요성 고취와 애국심 함양 도모를 추진중에 있다.

평화사랑 및 국가안보에 대한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준 높은 작품을 공모하여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인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공모 주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적 내용이면 되고 UCC와 사진, 포스터에 소질이 있는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상자에게는 수상자 전원에게 총 2,395만원 상당의 푸짐한 상장과 부상을 받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작품별 제출방법은 "2020 평화사랑 공모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갈수록 나라사랑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이때 공모전 기간중이라도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려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평화사랑 공모전은 안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